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칙칙하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칙칙하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칙칙하다

완성된 이름

칙칙하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칙칙하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빛깔이나 분위기 따위가 산뜻하거나 맑지 아니하고 컴컴하고 어둡다.

요약 연대표

표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칙칙후다				
칙칙하다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빛깔이나 분위기 따위가 산뜻하거나 맑지 아니하고 컴컴하고 어둡다.

문헌의 첫 기록

18세기

수록 용례

9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6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칙칙하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빛깔이나 분위기 따위가 산뜻하거나 맑지 아니하고 컴컴하고 어둡다.



칙칙하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칙칙하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칙칙후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칙칙하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칙칙후- 문헌 수록 표기	—	—	—	●→	●→	—
칙칙하-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칙칙후다
18세기19세기
- 칙칙하다

↳ 칙칙하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칙칙하다’의 옛말인 ‘칙칙후다’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칙칙후-’는 어근 ‘칙칙’과 현대어 ‘-하-’로 이어지는 ‘-후-’가 결합한 것이다.

↘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후’가 ‘하’로 되어 19세기에 ‘칙칙하-’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칙칙하다

전체 용례 9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8세기 칙칙후-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칙칙후-

출처 18세기 후반 한청문감 10:66L

용례 01

문헌 용례

色暗 빛 칙칙하다.

現代어 풀이

빛 칙칙하다.

19세기 칙칙하-, 칙칙하-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칙칙하-, 칙칙하-

출처 1880 한불사전 599

용례 02

문헌 용례

칙칙하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6 국한회어 곤:310

용례 03

문헌 용례

칙칙하다 [卑陋].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812

용례 04

문헌 용례

칙칙하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칙칙하-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칙칙하-

출처 1920 동아일보 4월 13일 4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이에 원공자 너 갓흔 칙칙한 도적놈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업다. 자아 저편 쪽 구석으로 가서 벽을 바라보고 안젓거라.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0 동아일보 6월 1일 3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목구멍이 포도덩이라 원수의 심활이 자유를 빼앗음으로 오도가도 못하고 칙칙하고 비위 상하는 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4 동아일보 6월 2일 2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말은 다른 말이지마는 작일은 룡월 일일이라 경향 각처의 순사가 칙칙한 거문 옷을 벗고 흰 여름옷을 말숙하게 가라입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5 동아일보 9월 29일 4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미움을 받는 게집이 칙칙하게 여러 말슴을 거듭하여 오히려 맘에 거슬릴는지 모르겠습시다마는 전당에 나가시는 것은 잠간 멈추섯스면 좇켓습시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조선일보 8월 7일 4면

용례 09

66 문헌 용례

또 『베니』도 칙칙한 빗보담은 또 명낭한 비출 써야 합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칙칙하다의 보충 설명

《국한회어》의 ‘칙칙하다’에는 한자 ‘卑陋(비루)’가 병기되어 있는데, 낮다를 뜻하는 ‘卑(비)’와 좁다를 뜻하는 ‘陋(루)’의 뜻을 고려하면 어둡다 또는 길다를 뜻하는 ‘칙칙하다’에 낮고 천하다를 뜻하는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세기에도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예를 볼 수 있다.

칙칙하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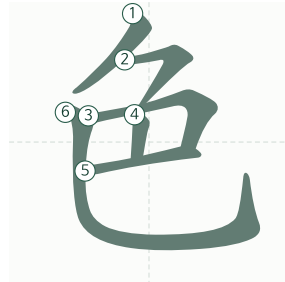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칙칙하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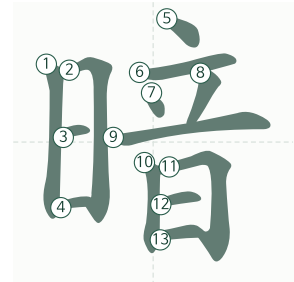
뜻·음 빛 색
총 6획 · 부수 色



hanja.wordrow.kr/한자/色/

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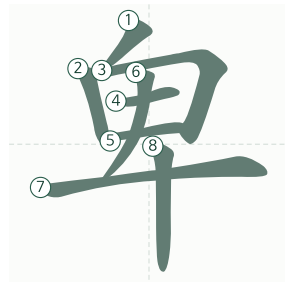
뜻·음 어두울 암
총 13획 · 부수 日



hanja.wordrow.kr/한자/暗/

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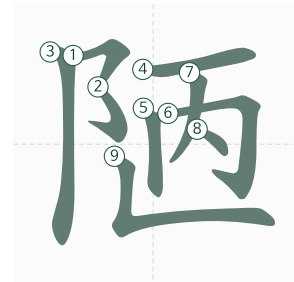
뜻·음 낮을 비
총 8획 · 부수 十



hanja.wordrow.kr/한자/卑/

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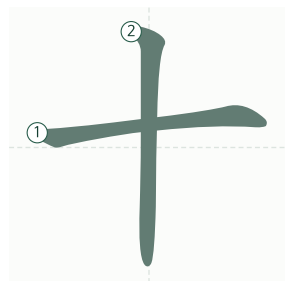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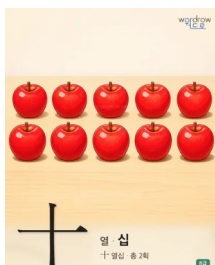
뜻·음 더러울 루
총 9획 · 부수 卑



hanja.wordrow.kr/한자/陋/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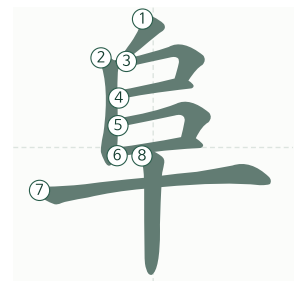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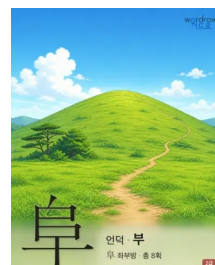
뜻·음 열 십
총 2획 · 부수 十



hanja.wordrow.kr/한자/十/

阜

뜻·음 언덕 부
총 8획 · 부수 阜



hanja.wordrow.kr/한자/阜/